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官吏制度改革案은 近近撤回키로決定

現內閣獨自의改革具現

【東京電話同盟】身分保障制撤廢은 ……

昨日閣議【東京電話同盟】……

近衛內閣 初與亞院會議

社說

民政黨有志代議士脫黨事件

前內閣方針踏襲

豫算編成、節約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編成 ……

地方部長級異動

【東京電話同盟】內務省部異動 ……

土屋農務局長辭任

內相秘書官決定

藤川電氣局長官勇退

金依存政策放棄

戰爭終局後歐洲經濟政策에

풍크獨經濟相重大宣言

【伯林二十五日發同盟】歐洲戰爭終局後의 獨逸及歐洲 經濟體制 ……

米洲뿔럭을抑壓

獨經濟圈宣言의主眼

米에非常한衝擊

金은絕對로排除不能

하바나會議難行

"米州카르텔案"에反對

外國使臣을接見

松岡外相就任人事

政府、大本營連絡會議

今日午前十時宮中서開催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大本營과의 連絡會議는 二十七日 午前十時부터 宮中東一間에서 開催되는데 今回는 特히 星野企畫院總裁도 出席하여 協議決定에 參加하기로되엿다

政府聲明은 來週初發表

新體制硏究會有志 武藤軍務局長訪問

英獨空中戰

市況 (廿六日)

單只警告에不過

米의石油、屑鐵輸出許可制

【華盛頓二十五日發同盟】石油와 屑鐵의輸出許可制를 實施한루스벨트大統領의 ……

米의考慮要望

外務省訓電을發送

部局割據의 惡弊를淸算

東條陸相訓示詳報

連日閣議는 今週로終結

國策具體的實現에邁進

七回日支會談

條約會議는一段階

海鷲各地猛擊

一粒中의비타민A는鷄卵十五個와牛乳三升과같음

服藥에絕好한이季節에

精力無盡의休力을

獲得하야明朗한生活로

「오오곤리온」의偉力

비-타민劑의發見과

注文法

オオンリンコオオン
오오곤리온

무좀

음낭습진,버짐,
매납,쇠버짐,

一途! 二途!

가려움도
아품도

금낭消退!

タムシチンキ의
强力한浸透力
굉장한殺菌力으로

歡喜와感激은 斷然이에限함!

本舖 株式會社 小林大藥房

小林 다무시칭키
タムシチンキ

簡單便利 天下一品
白毛染
專賣特許
누레쓰바메
바르는것만으로 自然美
小林大藥房

朝鮮도內地에追隨 明春四月부터實施

初等教育全般에原則的으로採用!

現四年制十年內로全部昇格

八年制國民學校

이세국민의 기초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의 초등교육문제에 현재의 육년제는 명년부터 다시 … 국민학교(國民學校)로 … 육년제소학교를 마치게 되 전부 팔년제 국민학교로 승격 …

朝鮮語科除外確定

必須科目에는包含치안흘方針

지금의 분과주의(分科主義)에 의(國民科)、산수、이과는 … 그리고 조선어과는 … 공작、재봉은 예능과 … 수신、국어、국사、지리는 국민과 … 농업、공업、상업、수산업은 실업과 …

奢侈品의店頭宣傳 府民意外로冷靜

當局、陳列窓을嚴重取締方針

사치품『언·파레-드』의 진고개 칠칠(七七)금지령이 시행된 … 『메리야스』가죽『잠바-』… 사치품을 … 이가치 상인들의 …

紅燈街에電擊作戰

無許可女給의出沒、鍾路署서摘發嚴重警告

『쿡、칠금지령』의 뒤를 이어 … 종로경찰서 보안계에서는 …

國際電話料金低減

【東京電話同盟】 체신성에서는 국제전화 요금을 … 미국 … 와의 … 『카나다』등에 …

羅市日米協會長 『와』女史入京

국제관광국(國際觀光局)의 초빙으로 … 일미협회(日米協會)장 『와트킨스』여사는 … 이십육일 아츰에 … 【사진은 경성역에 나린 『와트킨스』여사(왼편)와 영양(오른편)】

材木運搬中에 人夫一名溺死

【水色支局電話】 수색은 …

우리府尹의糞尿譚

"날이들어야할더인데 人夫조차모히지안소"

……能率第一主義를붊으짓고曇天을凝視……

劃期的擴充

八木學務課長談

국민학교실시에 대하야 총독부 팔목학무과장(八木學務課長)은 다음과 가치 말한다 …

舞鶴小學同窓會

水害에對備

京城府內세멘트配給

青陽에大水害

作文使節團 今日東京向發

外金剛에水害

探勝에는無異常

保育大講習會 "發表公演의밤"

來廿九日本社講堂에서開催

徵兵檢查와口頭試問에 말더듬는분이大喜

東京體聯과結成코 獨伊樞軸과提携

內外運動競技의新體制確立

中等野球中鮮豫選 中央接戰끄테慎敗

養正 35 (2510 / 176) 23 徽文

徽新 35 (2213 / 911) 20 培材

中東 48 (3226 / 87) 15 龍中

漢商 26 (1214 / 88) 16 東星

英彰 46 (2323 / 1211) 23 景福

全日本中等水球에 徽文水球部出戰

鮮滿對抗選拔排球

全日本中等排球

今日의運動

… 時時小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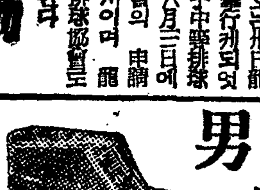
東海岸의名勝 永郞湖畔

天幕村會員募集

期限	八月一日(但滿員時는期限前이라도謝絶)
時日	第一隊(八月十一日午後十一時京城發) 第二隊(八月十八日午後十一時京城發)
定員	各隊五十名
會費	二十一圓(車費及食費)
申請	

注意事項: 早朝 라디오體操 / 晝間 水泳、낙시질 / 登山、名勝探訪 / 露營中의探勝、娛樂

主催 朝鮮日報社



連日雨天繼續으로 늘어가는赤痢患者
仁川署防疫도無顔色

【仁川】 [illegible]

다이야暗取引

【仁川】 [illegible]

電話申請
八月一日부터

【永登浦】 [illegible]

價格表示안흔商店 三十餘處를摘發
仁川署에서嚴重取締

【仁川】 [illegible]

學校侵入窃盜頻發
嚴重團束이必要

【春川】 [illegible]

金浦面	黔丹面	高村面	陽西
面	陽東面		
大串面	陽村面	月串面	

廣幅綿織物
配給뿔럭組織

【金浦】 [illegible]

江原鰛漁獲不振
比前年廿四萬樽激減

【春川】 [illegible]

長箭	三陟	三陟	
高城	臨院		
巨津	竹邊		
束草	厚浦		
注文津			
墨湖	計		

本府水揚

本社仁川支局後援
미도리회再公演
收入金은國防獻金!

【仁川】 [illegible]

深夜人家浸入코
現金四百圓窃取하여

【仁川】 [illegible]

秋本校長謝恩會

【元山】 [illegible]

農城平野를中心
大驛舍建築計畫

【城津】 [illegible]

神人共怒할이事實
十一歲女生徒를先生이凌辱
始興教育界에不祥事

【永登浦】 [illegible]

報德講習會에
江原道서도派遣

【春川】 [illegible]

密輸하려던機械商
懲役三個月을言渡

【會寧】 [illegible]

米穀購買證制
一石二鳥의成果

【城津】 [illegible]

中等校設置運動
三水、甲山聯合으로

【惠山鎭】 [illegible]

新浦邑民體育大會
本報新浦支局後援으로

【新浦】 [illegible]

第二回思想戰展
清津서大盛況

【咸北支社發】 [illegible]

橋口中心交通杜絶
再次交通杜絶

【高原】 [illegible]

浙江丸船員들이
醉中에治安違反
仁川署에서取調中

【仁川】 [illegible]

水害救濟金交附
江原社會事業支部

【春川】 [illegible]

폼푸車五臺增設
釜山消防改善期成會組織

【釜山支社發】 [illegible]

至急電話
八月一日부터申請

【仁川】 [illegible]

傳票制不便타고
通帳制實施要望

【釜山】 [illegible]

그치지안는霖雨로
麟蹄農作全滅狀態
郡當局서食糧對策을講究

【楊口】 [illegible]

소매치기
劇場雇傭人이

【永登浦】 [illegible]

쌀갑引上理由로
하루동안未配給
麟蹄細窮民非難藉藉

【麟蹄】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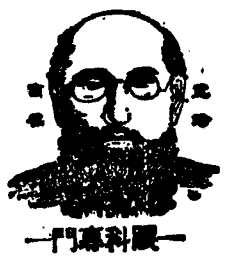
麟蹄에暴雨再襲

【麟蹄】 [illegible]

仁川
舞踊音樂의밤

▲時日 八月一日午後七時半
▲場所 仁川公會堂
▲入場料 五十錢均一
◇主催 仁川미도리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朝鮮日報讀者는三十錢)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醫學博士 山中崔之氏
醫學博士 豊田正達氏
—眼科專門—

이아가구메스리 (대학목약)

본약을매일아침點眼식히시면 어른애들께혼한돌님眼疾 눈다래기 눈곱끼는눈병등의豫防치료가되며 視力이强化될뿐외라 아름다운눈으로만들어주는특효가잇슴니다

우리조선에는 기후와로질관계로 특히안질환자가 많이계시며 더욱어 어린이들에게 이것이심하오니—즉아침 눈곱이 잔득끼여서 눈을뜰수없게된다든가 눈이서굽고 눈물이늘흘너나와서 눈을뜰수업다든가 혹은눈에삼이서 눈등질환이계신 어린이가 오작많이게십니까 그것을그냥두시면 악화되어 더심한고통을받을뿐외라 잣칫하면 눈이아주어두어버리는수도잇사오니 이런때에 本堂特製의小兒用大學目藥으로치료해주시면 그의강력한살균 방부수렴작용과 특수배제되어잇는專賣特許製劑「우르비오레긴」이라는紫外線防止藥의작용에依하여안질이곱나어 눈이아름다워집니다

효과 도라홈 결막염 각막염 다친눈 삼눈 광선안질 눈다래기 충혈 눈피로 눈점점한 눈등에특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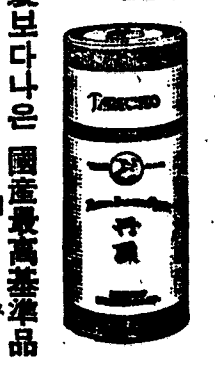
定價 小瓶 廿錢 中瓶 卅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廿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廿一錠 廿錢

全道有名한藥房에잇습니다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본용기는自動點眼의流線型容器로써 모양좋고 사용하시기에便利할뿐만아니라 太陽의紫外線으로인하여 약효가변질되지않도록 누른병에넣어있음으로 약효는늘 신선강력합니다

朝鮮日報社伊川支局電話三一番


丹頂チック
파리—製보다나은 國產最高基準品
舶來が はひらないので 較べて頂けないのが 殘念です
박래품이 드러오지안흐므로 비교해보시게 못하는것이 섭섭합니다
美爲物性 專賣特許

シッカロール
和光堂

藥年少更 春回精强 壽長老不
百補丸
百補丸會社 一割十円

여드름
잡티에는반듯이
여드름과잡티등으로 고민하시는분들은 이「여드름빼는 미안수」로곱치료해주십시요
버륵모기빈대등에물닌때
베륵 모기 빈대등에물녀가려운때에특효하오니 어느가정에서나한병식구비해두십시요
美容藥으로도
목욕후나세수후등에쓰시면잡티등을방지하여얼굴이어여뻐집니다

美顏水
にきびとり
여드름빼는미안수

各帝大病院常備藥
造血아옷조로몬
ヨードブルトーゼ
動脈硬化
小瓶 大瓶

寄生虫에依한國民保健運動
虫退治
에기들에게 蛔虫은따르는것 먹읍시다 マクニン

マクニン
먹기쉽고·잘듯고·해가없음

ユースロ紅 パーマネント
ウテナ 姉妹品
生きた唇
魅力的な唇 問題は口紅です。クタモノを召しあがつても落ちない、生きた色感、理想を現實にしたすばらしい口紅です。
本舖 久保政吉商店

學藝

아메리칸·리알리슴의敎訓……❶
最高賣行과素材
金南天

亞米利加小說이 本國에서뿐만아니라 世界 各地에서 베스트·셀라—스의 頂上을 占하고잇는 狀態에對하여 그原因가튼것을 繁究해보면서 그들의 리알리슴이 우리小說의 現狀에던저주는敎訓이나 暗示가튼것을써 보려는것이 編輯者의 注文이다. 그方面에對해서 素養이업는門外人인 筆者가 이글을 草하는것은 亞米利加 리알리슴을 自己流로 解釋해서 現在의 우리文壇에對한 反省資料를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오려는 全然筆者個人이나 또는이땅의리알리슴硏究의 緊急한 必要에 應할려는 心算으로서이다. 그러므로 이方面에對한 正確을 어느專門家의 硏究와 亞米利加小說에對한 大方의 關心에對한 要望은 依然히 今後의 우리小說界에잇서 하나의 緊要事가될것을 미더疑心치안는바이다.

小說) 어 數萬, 數十萬의 讀者를 가진다는事實은 讀者層의社會心理에依하여 決定되는바가클으로 그 事實을 가지고 곳小說의 文學的本質을 解決하는 或種의 히 決定될수는 업는것이다. 最高賣行小說이라는것이 그 文學의 藝術的優秀作을말하는 것이 될수업다는 소리는 벌서 常識으로되어 버렷다. 그러나 高級 讀者를 한사람도 가지지 못하엿다는것이 그 小說의 名譽가 되지 못하는것이 事實이라면 우리에게는 小說의 數十萬의 讀者는 眞實한 態度로 最高賣行의 現象을 注目할 必要가 잇슬것이다. 最高賣行을 가르처 通俗小說이라고 排斥하는데는 웬일인지 作家의 억지와 自己嫌惡가 隱蔽되어 잇을런지도 알수업다. 文學이 하나의 表現藝術인바에는 小說이 數十萬의 讀者를 가진다는것은 ……

(飜譯) 한 『그림 · 하우스』는 一個月에 米國에서 二十萬部, 英國에서 十四萬部 三年동안 最高賣行의頂上을占하엿다하며 『大地』의 『펄·벅』 도 한가지로 現在歐米出版界에서 最高賣行으로 通俗小說이라는것이 日本內地文壇에 翻譯되어 『바람과 함께 가다』도 依然히 歐米에서 安定한 勢力으로 讀者를 가지고 잇다. 이러케 여케의 藝術性을 論하기前에 생각하여 보아도 우리의 小說들이 決코 內地의 小說들과 比較해서 ……

漢詩募集
逢東考達
題 螢火
押 微韻 韻部
期限 八月十五日
(學藝部)

文學) 一頁

【隨筆】……❷
柳京雜感
崔明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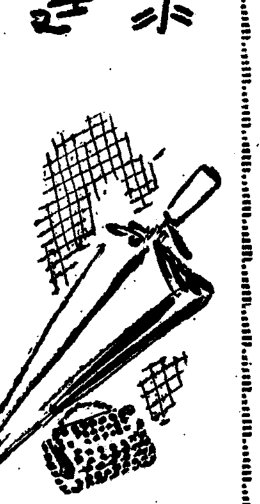
平壤서 七八十里거리인 平原郡에서 서도 못한老人이라 한平生사라온 그洞里를 제가뿌해서살고지픈 곳이라 살아오긴 勿論아니지만 그정자나무와 가치 그곳에 뿌리를 박엇스니 살는 猿猴이다.

好辭한 애수의 숭내가튼말이지만 玉干에 떠러진 씨나 몽작바테 떠러진 씨나 떠러진 그곳에 뿌리를 박고살수밧게 잇스면, 或은 十倍가되고 或은 百倍가 된다는 成果의三者的 評價는 어찌되엇든, 사는 그곳이 그나무 그곡식에게는 唯一한 生活領域이요世界일것이다. 그러한植物처럼 村老는 저의 할아부지가 심근 정자나무 그늘미테서 七十平生을 사는데 滿足하거나 不滿으로 사람의기에는 너무도 宿命의 힘이 컷을것이다.

何必 그런 村老뿐이랴. 어世上에 흔한 사람이 그村老가 아닐까. 나 역시 그런 한사람으로 只今 平壤에 살아온것이 그런 滿足할것도 不滿할것도 업시 그저 살게된 事實이 뿌 살아가는것뿐이다.

그래서 알서도 헌말이지만 나는 何必 웨 여기(平壤)에 다 집을 짓는가? 이런생각도 하게 되는것이요, 이런 공리를 해보다가 ……

방학동안엔 자연과친하자



즐거운 여름방학 동안을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방학동안은 어떻게 지내야하나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 시절이 시절인 만큼 근로를 한다든지 주의할 점 등 도회) 에서는 그것도 못하고 또 오늘날에 비하여 생각하여 ……

京安當識
★개미퇴치법

요즈음 가치 날이 축축하고보면 개미가 더 끌여나옵니다. 거기다 개미에게 음식냄새라도 막게한다면 좋지러해서 개미떼를 몰아 잡수 업습니다. 나중에는 마루틈에다 집을 짓고 벽바른바람에 그손해는 그냥 내버려둘수가 업는것입니다.

▼……▲

어떤 개미를 퇴치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인것으로 『그림』에 다 헌 『리소』 가리를 녹겨서 개미집을 발견하고 허문다음 끌이면 효과적입니다 다만 유독(有毒)하니까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어떻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단지인에 모여도는것을 막으려면 개미길을 정해잇스니까 그뒤를 따라서 나오는 길을 찾고 그 주위에다 석회(石灰)를 뿌리면 완전히 막을수가 잇습니다. 담배 짤고나서 재를 담가서 효과적입니다.

▼……▲

또 설탕병가튼데 모여드는 것을 막는것으론 분(粉)을 설어하면 개미는 철한 가지를 조금 더 두어두면 곡식을 그릇 밑으로 조금 넣은 것을 두면 개미는 그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나무에도 올라가니 때때로 약을 뿌려주면 됩니다.

떡을 먹으면 젓잘나오는까닭
새화설이나왓습니다

옛날부터 어머니에게 떡을 먹으면 젓이 잘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 젓의 영양은 아기의 발육에 매우 필요한 것이며 어머니가 먹은 음식이 젓으로 나와서 어머니의 영양이 부족하면 아기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의학부(慶大醫學部)의 석회석(石灰石)은 음식이 곤란함을 추정하고 어머니 젓에 특히 『망간』이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 가 떡을 먹으면 젓이 잘 나오는 것은 떡에 함유된 『망간』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인데 알곡의 쌀에게 『망간』을 만이 포함하고 있어서 ……

식품을 들어보면 쌀의 배아(胚芽)·해초(海草)·겨, 『오—트미—ㄹ』·콩·『카제』 가루·호추가루·『코코아』·엽맥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망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영양상 조흐한 음식으로 떡을 먹으면 만이 물이 떨어 좋다고 합니다.

분량은 만이 포함되어 있으면 초기 이외에는 몸에 좋지 않을 때도 있으니 처음 임신이 될 때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다는이은 가정온천을!

여름이 되면 특별히 여름을 타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식욕이 감퇴되며 따라서 몸이 여위고 잠을 잘자지 못하는 분은 냉온(冷溫)교대로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더운물에 여섯분 동안 냉수에 들어가시든지 찬물로 머리서부터 뒤집어 쓰면 좋습니다.

특히 여름 냉방이나 『류마치스』 등은 어떤방법으로 대개 잡니다.

또 신경통이 아니라도 위장이 약한 분이나 불면증 신경쇠약도 다 자연히 낫습니다.

또 내장(內臟)에 관계하여 ……

보기도하고 동물에 실험을 해서 확실히 연구도하고 있습니다 만, 동물과 『망간』은 특히 부인의 영양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선려바사의 여아가 기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망간』은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필요한 이유(理由)기간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의 유명한 연구가 『마간』을 ……

여름을 부칠여름니다. 그후에 『마쓰카라무』 가다시질조사해보니 『망간』을 먹으면젓이 떡 잘나오고 먹지 안흐면 별로 적어 잘 나오지 안는것을 발견하엿습니다. 예를 들면 새끼 쥐에게 어미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

지차리우

개골어

개골 개골,
개골어가 운다.
풀밭에서 운다,
연못에서 운다.
풀밭에서 펄쩍,
연못에서 퐁덩,
개골 개골,
개골어가 뛴다.

(아저씨)

그 못을모하게다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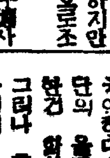
★질그릇 사신후에 소금물에다 물시하게 삶아두면 오래갑니다.

★유리그릇 『컵』 류는 소금물에 시치십시요. (속에 병등은 겨란 껍질을 잘게해서 조금 넣고 흔들어도 좋습니다.)

★『아루미뉴—무』그릇 『소—나』 재로 싯는일 처럼 유를 석근것을 헌겁에 적해서 싯어 주십시요.

★양재기(琺瑯器) 어떤 그릇이든 가루나 네톤을 송에무처서 닦으면 쇠로 닦습니다.

★철그릇 철그릇에 녹이슬지 못하도록 하려면 헌 『파라핀』 류를 뿌린 나 종이를 바르고 마른수건으로 문지르면됩니다.



長篇小說
青春茂盛 【116】
李泰俊 作
鄭玄雄 畫

罪와罰 (6)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는 시련이엿습……」

목주는 엄마가 내지는 말을 마는 『하나님께서』란 말을 하엿다. 속에 부르지젓다. 목주는 눈물이 주르르 흘럿다.

『신앙이 아니냐 백만권 천만원이라도 내게 가진것 다 주어라!』 목적을 탈내수 잇다면 그 돈을 가리지 못할것 한의 손에 내 허영이 있겟다!

그러나 후회가 안된다! 하나님께 나를 쫓겨라 모진 벌 모진 매 다 마다지 오너라 와서 나의 몸을 순한 모든것을 여서 태워버려라! 순수한것만이 꺽쩍한 의 최목주가 남어잇을것이다

짜른 하루에 바껴엿다. 저기가 거룩한 한줄기 빛이 되어 한평생 저기서 나의 영혼이 높고 거기에서 영원한 애도 세자 저나가 하엿다. 어러게 자유스럽게 무한한 공간 속에 사람을 예저 어 인생 대로 인생의 영광을 위해 마음의 활동을 할수 잇게 될것이다.

『저러케 창조주를 어데 보고싶다!』

목주는 그만 창문을 부스고 내닷고 싶은 충동에 별안간 일어나서 이러서다가는 그만 유리창에 부듸치고 쩔러지고 마는 참새처럼 가슴만 할다거 주저안고 마랏다.

고마운 것은 백히선이 엿다. 처음부터 사실을 넘어주엿고 또 옷을 자조 갈아 넘어주엿고 옷을 자조 갈아 넘어주엇고 수……

저 칙약 가느것 조금도 용색치 안케 보살펴 주엇다. 목주는 전에 어느 남자 정문 학교에서 한 연극을 구경한 생각이 낫다. 어떤 노동자 하나가 점잔을 설은 구두마를 끌고 고약 엿다. 노동자는 너머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나도 당신과 노동자요" 하는 대답이 엿다.

『지금 나에게 빵을 주고 옷을 주고! 누가 한수 엿는 일이냐? 인물고 악담한 속에 따스한 손길을 너허주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무어냐?

세상사람들아 우리를 천하게 여겨라 불행한 인생들이라 벗어지 말라! 우리의 동인들 거리에도 천사는 엿다! 아니 천한사람들, 불행한 바람들을 위해 정말 자기를 사리들은 제자신 천하고, 제자신 불행한 우리들이 아니면 안된다!』

목주가 유치되지도 어느듯 칠십여일 세수물에 어름이 떠올 당한날 아침이다 변호사가 나타낫다 자기는 백히선의 부탁으로 이사건을 마텃다는것이엇다. 그리고 허선의 운동으로 윤가 고소장을 철하하엿다.

『고소장을 철하하엿습니까?』 『어째 내가 가치와서 쳐하엿습니까?』 『그럼…… 그럼 어떠케 되나요? 무죄가됩니까?』

목주의 눈에는 오래간만에 눈물이 맺힌다.

취조하는 경관의 형식은 치 보다는 주의 벌에 의해 공모한는 없다 보는 사나이의 남자가 여서야 할것이다. 어상 목주는 황홀된하는 감정의 심각한 원인은 여자 다 여자를 벗어나 아니라 잣재를 내려 주여야 하랴.

취조사에 잇서서 목주는 남긴 압이 엇다. 그러나 목주는 한편에서도 하엿다. 돈을 가끔 가르키 밀고 나가 밀어도 재판에 올로 법정에 갈 정 보다 아무 기대를 밧지는 못하고 분명 함을 처음 더 좀 보고 하엿다.

나 남려갈지 가볼가!』 목주는 도시의 이 죄 벗는것을 거운 얼골을 상상하면서 그의 「일년오개월동안 건강을 빌어다 『난 언제나 재판소로 가나?』 얼마나 바뀌엇는가? 몰래 꺼낸 오니 절 해 남의 도적을 해서야 돈 액수가 만흐니까……」 선창살 밧게는 서늘함이 하게가 돈다.